

“감동 선물”...반응 뜨거운 ‘화순 8경 사진전’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서 4월 17일까지 전시 작품 50점서 화순의 사계절 비경 선보여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하 천사관)에서 열리고 있는 화순 8경 사진전의 반응이 뜨겁다.

2월 개막한 (화순이야기Ⅳ-8경)전은 4월 17일까지 열린다.

전시 작품 50점서 화순적벽, 운주사, 백야산 하늘다리, 고인돌 유적지, 만연산 철쭉공원, 규봉암, 연둔리 숲경이, 세량지 등 화순 8경의 비경을 만날 수 있다.

화순 도암면 운주사 입구에 있는 천사관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 반응이 좋다.

화순읍에 사는 김아무개 씨는 방명록에 “대형사진 작품이 특히 눈에 띄네요. 화순 8경의 빼어난 절경이 눈앞에 있는 듯 선명하고 멋져요! 화순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소

감을 밝혔다.

양아무개(순천시 풍덕동) 씨는 “항상 기대 이상의 감동을 주는 천사관 정말 좋아요! 화순군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 그런지 우수화 기획전이 1년 내내 계속되니까,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게 되네요”라며 만족해 했다.

전시 작품들은 화순 8경을 탐색해 온 사진가들이 대거 참여한 ‘화순 8경 사진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천사관은 동시에 200대 이상 수용 가능한 널찍한 주차장을 갖춘 단아한 2층 건물로 2017년 개관했다.

전국 군 단위 중 유일하게 사진 전문 전시장을 갖춘 곳으로 사진 관련 전시, 교육, 행사 등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



다.

2018년부터 화순의 풍경을 담은 사진에 대한 아카이브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영상강에 대한 사진 이야기를 준비 중이다.

개관 5주년을 맞는 천사관은 화순을 넘어 남도의 삶의 원형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행

보를 하며, 지역의 사진 문화를 견인하는 ‘남도 사진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천사관은 매주 월요일만 휴관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 관련 사항은 천사관 (061-379-589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방제 약제 3종 공급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과수화상병 원천 차단을 위한 방제 약제를 농가에 보급하고 적기 살포를 당부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배·사과 재배 농가 2010명에게(전체면적1783ha)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3종) 2만8880봉을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배·사과 등 장미과 식물의 꽃과 잎, 가지 조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돼 고사하는 병이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치료약이 없어 한 번 발병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할 만큼 과수업계에 치명상을 입혀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5개도, 22개 시·군 지역 618농가가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 면적은 288.9ha에 달한다.

시가 공급한 의무 방제 약제는 ‘탐나라’, ‘명품탄’, ‘세리펠’ 총 3종순이며 살포 시기는 개화기 이전, 개화기 1-2차로 나뉜다.

과수화상병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올해부터 방제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방제는 반드시 개화기 이전과 개화기 1-2차로 나눠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나라’의 경우 인편이 벌어질 때 최초 방제하고 ‘명품탄’은 만개 후 5일, ‘세리펠’은 만개 후 15일 간 각각 살포해야한다.

농가는 약제 살포 후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적기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희석배수 준수, 농약안전 사용법을 숙지해야한다.

방제 이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과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약제방제확인서는 1년간 보관해야 발병 시 보상이 가능하다.

진종욱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법이 없어 사전 예방을 위한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적기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과원 소재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맛있는 햇감자 본격 수확 나서

구례군은 지난해 11월에 정식한 수미 감자를 본격적으로 수확한다고 밝혔다. 구례감자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청정지역에서 자라 식감이 좋고 포슬포슬 한 맛이 특징이다.

군에서는 2019년부터 시설하우스 감자를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선정하여 70여 농가 12ha 재배면적에 기반을 조성하여 소득 작목으로 육성 중이다.

특히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겨울철 시설하우스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박보은

으로 이용된 지하수를 재사용하여 다시 순환시키는 기술을 2개소에 시범운영 중이며 경비 절감 및 지하수가 부족한 현장 여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례군 용방감자작목반 총무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급식과 시장소매 문화로 감자 수요가 줄어 재배 농업인들의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맛있는 구례 감자를 드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취업 위한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비 지원 받으세요”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꿈 job! 교육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구인 수요는 많으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법정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과정은 경비신입교육, 소방안전관리자 2급, 지게차 면허(3톤 미만/3톤 이상), 요양보호사료.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 군민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율적으로 교육을 수강한 뒤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한 대상자에 한해 교육비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취업 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참여자 모집인원은 25명 내외로 접수기간은 4월 8일까지이다. 교육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061-381-9211)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작지만 강한 강소농 본격 육성

곡성군이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신규 강소농 25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기초 과정 교육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중소 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 전반을 강화함으로써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5회 60시간 과정이며,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심화, 후속,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먼저 강소농 농업경영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의 기초개념을 학습하게 된

다. 또한 품목별 표준 진단을 통해 자신의 농업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 트렌드에 맞는 경영 전략 모델을 수립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가 방문 크로스 코칭’을 도입해 기존의 교육과 차별성을 뒀다. 교육생과 전문가가 동료 교육생을 농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습한 내용과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동취재본부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 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건설
- 포스코케미칼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ICT
-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 포스코엔텍
- 포스코O&M
- 포스코기술투자
- 포스코티미날
- 포스코A&C